

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발생... 광양시, 시민 주의 당부

“의심되면 즉시 확인 요청해야” 광양시, 대표 SNS, 문자 등 통해 예방 활동 강화 예정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광양시에서도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과 공문서를 이용한 정교한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해 언론 제보, 시 대표 SNS 안내, 유관기관 및 이통장협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를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유사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11일 발생했으며, 사칭자는 광양시청 특정 부서의 특정 주무관을 사칭해 피해업체에 전화를 걸고 “8

천만 원 상당의 물품 납품이 시급하다”며, 가짜 공무원 명함과 대리구매업체 명함을 문자로 전송했다. 이후 “금액은 시에서 차후 지출 예정이니 우선 대리구매업체에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업체는 이에 응해 총 2,700만 원을 대리구매업체에 입금했다.

이후 피해업체는 의심을 느끼고 알고 지내던 시청 직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광양시청 직원은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업체와 함께 광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양시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매업체에 선금을 요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수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No-

show) 사기’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사례는 모두 실존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를 도용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명함을 통해 신뢰를 얻은 뒤 고가 물품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시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반드시 공식 대표전화나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스러운 명함이나 공문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시 대표 SNS 등 소통 채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치유페이 23억 소비 이끌며 경제 활력 더해

식당, 특산물 매장, 숙박 등 골목 상권 활성화 도움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3개월 만에 23억 원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 내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완도 치유페이를 통해 23억 8천9백7십만 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 6천7백5십만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 6천만 원에서 5월 12억 6천만 원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완도 치유 페이’ 참여도도 높았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 9천만 원, 특산물 매장에서 5억 8천만 원, 숙박에서 4억 3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업종 중심의 소비로 직결돼 골목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완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과 5월은 명절처럼 손님 이 많이 몰려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이는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한 결과로, 군은 하반기에도 계절별 테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화순군, 벼 친환경재배지 공동방제비 지원

공동방제 작업비 2회 지원, ‘경영비는 내리고 품질은 올리고’

특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 비래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5월 벼과 작물에 해로운 멸강나방 유충과 6월 검역 해충 관리급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예찰 되어 올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벼 모내기 후 생육에 피해를 주는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 초기 발생 해충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찰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는 벼 재배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벼 친환경 재배지는 병해충 적기 방제가 더욱 중요하므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곡성군 석곡면 당지마을,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선정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ha 중 9.9ha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ha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ha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ha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보성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온·오프라인 캠페인

보성군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 아래,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과 온라인 참여 콘텐츠를 병행해 구강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했다. 지난 6월 12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에서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치실 등 위생용품은 무료로 배부해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장려했다.

특히, 시장을 찾은 유치원생들에게 구강 모형을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 활용법, 식이 조절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예방 교육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윤기 기자



제2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 개최

진도군은 지난 12일,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입학식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강생 모집을 통해 선발된 35명의 입학식 진행 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요 교육 방향에 대한 설명과 수강생 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진도 군민 리더대학’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진도군과 군민이 안팎으로 함께 노력해야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도군과 군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도력(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농수산, 관광, 보건복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